감귤의 분류(分類)

감귤은 운향과(Rutacea) 감귤속(Citrus)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성 식물로 근연식물로는 탱자속과 금감속이 있다.

밀감속 식물을 대별하여 초생감귤아속과 후생감귤아속으로 나누어지며 종(種) 수준에서는 학자에 따라 분류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의 Swingle은 야생종을 중심으로 해서 16종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Tanaka는 재배종을 포함해서 159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원예적 분류로는 조생종, 중생종 및 만생종 혹은 온주밀감과 잡감류로 나누기도 한다.

감귤류의 명칭에 있어서 귤(橘), 감귤(柑橘), 밀감(蜜柑), 오렌지(Orange)등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귤이라 함은 재래감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밀감(蜜柑)이란 온주밀감(溫州蜜柑)을 칭하는 것이며 감귤(柑橘)은 금감이나 탱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학술어로는 Citrus이다. 그리고 오렌지는 미국을 비롯한 아열대권에서 재배되는 감귤류의 일종이다. 또한 잡감류(雜柑類)는 온주밀감(溫州蜜柑) 이외의 감귤류(柑橘類)를 총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만감류(晩柑類) 혹은 기타 감귤로 호칭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온주밀감(溫州蜜柑), 오렌지(Orange), 하귤(夏橘), 팔삭(八朔)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종(種)명이고, 궁천조생(宮川早生), 흥진조생(興津早生) 및 청도(淸島), 감하귤(甘夏橘)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품종(品種) 및 계통(系統)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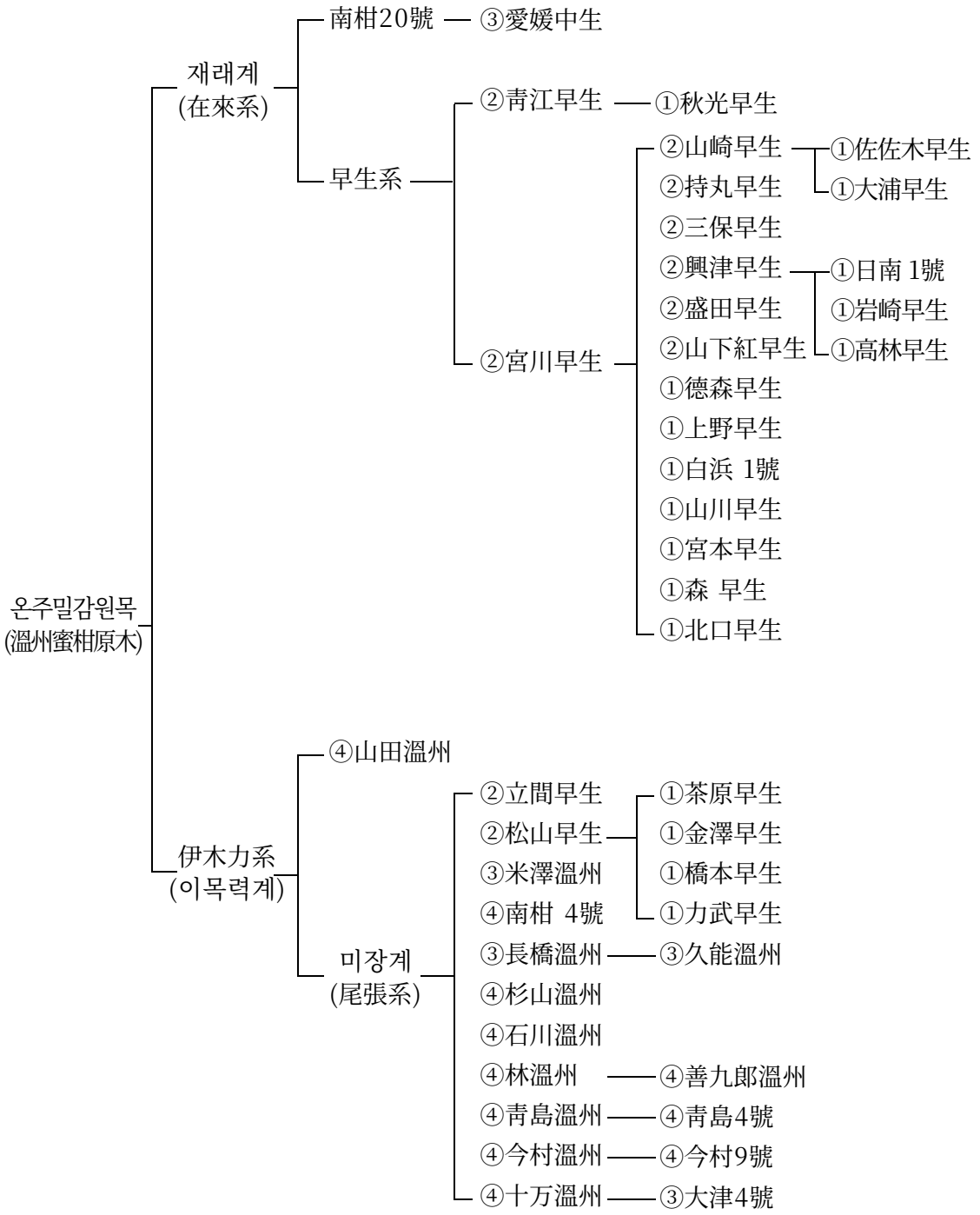
근래 만다린(Mandarin), 탄제린(Tangerin) 등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Mandarin 이란 온주밀감을 비롯한 폰깡, 클레멘틴 등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는 귤의 총칭이며 온주밀감은 Satsuma mandarin으로 통용된다.

Tangerine은 분류상으로는 대홍밀감이나 일반적으로 붉은색이 짙은 것을 Tangerine 이라 하고 노란색인 것을 Mandarin이라 하나 미국에서는 관피귤(껍질을 벗겨 먹는 귤)을 모두 Tangerine이라 칭한다.

Tangor이란 밀감(Tangerine)에 오렌지를 교배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단깡(桶柑), 마코트(Murcott) 등이며 Tangelo는 밀감에 문단 혹은 그레이프후르트를 교배한 것으로 대표종으로는 아구리(Ugli), 미네오라(Minneola) 및 세미놀(Seminole) 등이다.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온주밀감은 대부분 가지변이에 의해서 선발된 것이며 그 대표적인 품종의 계통분화도(系統分化圖)는 다음과 같다.

온주밀감의 계통도



※ ① 極早生 ② 早生溫州 ③ 中生溫州 ④ 普通溫州